

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17.

발 의 자 : 어기구 · 위성곤 · 오영환  
이개호 · 박광온 · 주철현  
박상혁 · 김승남 · 이형석  
허종식 · 송옥주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·개발·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고 있음.

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되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,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·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).

##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제3항제4호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”를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 · ② (생략)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다만, 취수시설(「수도법」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)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(流下距離)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</u>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(제3조제5호에 따른 「내수면어업법」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)	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</u> <u>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
5. (생략)	

<u>&lt;신 설&gt;</u>	<u>6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</u>
	<u>행할 수 있는 사업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</u>
	<u>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</u>
	<u>로 정하는 사항</u>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